

(2026년 10월 9일 금요일 2면)

채승우 송파구의원, 위례~과천선 공청회 참석

송파구의회 채승우 의원(더불어민주당·거여1동·가락2동·문정1동)은 지난 10월 2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'위례~과천 광역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'에 참석해 사업 추진 상황과 지역별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. 이날 공청회에는 같은 지역구인 박지효 의원(국민의힘·거여1동·가락2동·문정1동)도 함께 참석했다.

이번 공청회 참석은 위례~과천선 두데미역 신설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의정활동의 일환으로, 주민 의견 수렴 과정과 향후 사업계획 반영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.

박 의원은 "위례~과천선이 주민들의



채승우 송파구의원

실질적인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"고 밝혔다.

채 의원은 "두데미역 신설 역시 기초의원 한두 명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닌 만큼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"고 말했다.